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1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5일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李대통령 재판 연기… 法 '불소추' 적용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 연기
나머지 재판 임기 후로 미뤄질 듯
재임기간 사법리스크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이 중지한만큼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기일을 '기일변경(추정)'으로 지정했다.

'추정'은 명시적으로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추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문언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84조의 법제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워 소추에 재판이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았다.

84조의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 이외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는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헌법상 대통령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사실상 중지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재판부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 속개를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가 판단하며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지난 3월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째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벌써, 32도 초여름 무더위

광주·전남 지역에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며 "특히 10일에는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한낮 최고기온은 장성이 32.2도, 담양(봉산) 31.9도, 곡성(옥과) 31.7도, 곡성읍 31.6도, 광주 과기원 31.6도까지 치솟았다.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가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를 의미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았다.

10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에 분포할 전망이다.

11일은 아침 최저기온 15~20도, 낮 최고기온 25~30도에 분포하고, 12일은 아침 최저기온 16~19도, 낮 최고기온 24~30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12일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당분간 평년(최저 16~18도, 최고 24~29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13~14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버스 파업, 30분 출근길 1시간 넘게 걸렸다 ▶6면

굿모닝 예향 - 싸목싸목 신안 여행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본격 순위싸움 펼친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K뮤지컬 새역사 썼다

2016년 대학로서 데뷔한 작품
韓초연 뮤지컬 토니상 첫 수상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관련기사 16면〉

어쩌면 해피엔딩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상을 석권했다.

앞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번 토니상 시상에서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죽어야 사는 여자'(Death Becomes Her)와 함께 최다 후보작에 올랐다.

최종 수상까진 이르진 못했지만 오케스트레이션(편곡상), 의상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부문에서도 후보작에 올라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날 6개 부문 수상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국내에서 2016년 약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됐으며, 이후 영어판 제작을 거쳐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며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

국내에서 초연된 완성 작품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을 수상한 것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이다.

박 작가는 작사·작곡상 공동 수상 소감에서 "브로드웨이 커뮤니티가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연합뉴스